

“순교자와 같은 결단… 현대사회 경종”

제자 김정희·책 번역 정종휴 전남대 교수가 본 교황 퇴위

“교황이라고 종신제 할 필요없어… 종교사적 높이 평가”

“교황이라고 반드시 종신제여야 할 필요는 없다. 교황도 인간이다. 노인이 되면 한계가 있다. 먼저 물러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지난 11일 퇴위를 발표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김정희(75) 전남대 사범대 명예교수 등 40명으로 구성된 ‘제자 모임’의 토론이 열렸던 지난해 9월 1일의 제자들과의 대화중 했던 말이다.

독일 웨센스부르크대학 신학과에서 교황으로부터 신학을 배운 제자 김정희 교수와 교황의 책을 6권이나 편집한 인연을 갖고 있는 정종휴(63)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들은 “순교자와 같은 결단이다. 가톨릭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리를 자신의 의지로 내려놓은 것은 종교사적으론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더불어 실적과 경쟁이 우선하는 현대사회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가톨릭 여성 신학자 1호인 김정희 교수는 1972년 선교신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처음 베네딕토 16세를 만나 그의 학문과 인품에 매료됐다. 이후 웨센스부르크대학 신학과에서 교황으로부터 수강하며,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를 받았다.

김 교수와 같이 수업을 받은 베네딕토 16세의 제자 40여명은 매년 8월 31~9월 1일 모임을 갖는다. 이중 상당 시간을 교황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회 일자 운동이나 시대상황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

인다. 김 교수는 “요한바오로 2세가 파킨슨병에 걸려 투병할 때, 베네딕토 16세가 교회성장장관으로서 직무대리 역할을 했다”면서 “그때 받은 영향 등으로 인해 인간의 한계성과 직무수행의 한계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교황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종휴 교수는 “12억명의 신자와 4000여명의 주교, 1000개 이상의 대학 및 수도원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황의 자리를 자의에 의해 사직한 것은 송고한 응답이자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다”고 평가했다.

20년 넘게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친분을 맺어 온 정종휴 교수는 “처음으로 생전에 퇴위함으로서 가톨릭이 한층 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삶의 의미를 못 찾은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회수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교황의 책 가운데 ‘이땅의 소금’, ‘하느님과 세상’, ‘세상의 빛’ 등 모두 6권을 한국어로 번역해 국내에 소개했다.

정 교수는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에 취임하기 전부터 친분을 쌓아 그동안 모두 6차례 그를 만났다. 이 중 교황 시절 알현한 것만 세 번이다. 그가 베네딕토 16세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대 초. 독일 뮌헨대학 법재사연구소 객원교수로 있던 정 교수는 베

티토 16세(당시 요제프 라침거 추기경)가 쓴 ‘라침거 리포트’를 접한 것에 계기가 됐다.

정 교수는 “교회가 겉으로는 개혁·쇄신·개방이라는 말로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교회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정면으로 말한 책이었다”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한다는 게 쇼킹했고 내 신앙을 고정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라침거 추기경의 사제 서품 30주년 기념미사 헌영식에서 당시 교황청 장



김정희 교수와 교황 베네딕토 16세.

관으로 있던 라침거 추기경을 처음으로 대면한 정 교수는 책을 번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이후로 꾸준히 그의 책을 번역하여 친분을 유지해왔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교황청을 당시 30분 남짓한 면담 시간 중

에 교황이 직접 정 교수를 언급하며 “내 책이 한국어로 여러 권 번역됐는데 번역한 교수와는 지금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정 교수는 “내가 번역한 책 6권 중 4권에 한국 독자들을 위한 서문을 따로 썼다”며 “교황의 책이 수십 개 국가에서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됐는데 별도 서문을 써준 것은 한국어판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이같은 돈독한 친분으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에는 대통령 특사로 교황청에 과연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교황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정종휴 전남대 교수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저서 중 5번째 번역서인 ‘신앙·진리·관용’을 출간 후인 지난 2009년 8월 30일, 이탈리아 카스텔간볼포 교황 집무실을 방문해 교황에게 번역서를 전달하고 있다.

교황 28일 전격 퇴위

내달말 새 교황 선출

교황 베네딕토 16세(85)가 이달 28일 퇴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2005년 4월 19일 78세의 나이로 26대 교황에 선출돼 즉위한 지 7년 10개월 만이다.

교황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8시(한국시간 3월 1일 오전 4시)에 퇴위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신 앞에서 나의 양심을 거듭 성찰한 결과 고령으로 내 기력이 더는 교황직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퇴위 결심 이유를 밝혔다. 교황은 “이 일(교황 퇴위)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

1500년만에 첫 흑인 교황 탄생 할까

가나 출신 피터 턱슨 등 흑인 2명 물망

고 있다”면서 “교황직에서 퇴위한다는 것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밝혔다. 교회법은 교황의 자유의지에 따른 퇴위를 인정하고 있다.

베네딕토 16세가 퇴위하면 1415년 그에 고리오 12세가 퇴위한 이래 598년 만에 처음으로 선종에 앞서 퇴위한 교황이 된다. 차기 교황은 3월 말 선출될 예정이다.

페데리코 룰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주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베네딕토 16세 퇴위한 날로부터 15~20일 이내에 열릴 것이며 “부활절(내달 31일) 이전에는 새 교황이 즉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전격 퇴위를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차기 교황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할 만한 점으로 이들이 대부분 비(非) 유럽권이고, 이 중에는 아프리카 출신 혹은 2명이 포함돼 있다.

현재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인 가나의 피터 턱슨(64) 추기경이 꼽힌다.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2010년 8월 런던을 방문할 때 턱슨 추기경을 대동하면서 그는 차기 교황 후보로 이름을 알렸다.

테크 추기경은 1948년 골드코스트 주자군에 포함된다.

캐나다 마크 월레 추기경도 비유럽권이라는 것이 득표요인이다.

지난 2005년 교황 선출 당시 경험과 학식에서 앞선다는 점에서 베네딕토 16세가 선출됐지만, 비 유럽권 교

황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벌어졌다.

유럽권 후보로는 교황청 문화평의회 의장인 이탈리아 출신의 지안프란코 라비아(71) 대주교가 대표 주자로 꼽힌다. 제266대 교황이 되려면 교황 선출회의인 ‘콘클라베’ 참석자의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 베네딕토 16세의 퇴위 선언에 따라 바티칸 교황청은 3월 말 이전에 차기 교황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은 교황의 공식 퇴위 일이 오는 28일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은 이를 안으로 주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를 소집해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보안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주기경단은 69개국 203명으로 파악됐다.

주기경단은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추기경단 69개국 203명 참석 비밀회의

■ 교황 선출 ‘콘클라베’란

회의장과 속소에서는 TV, 인터넷, 전화 등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금지되며 신문만 제공된다.

교황 선출은 추기경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된다.

주기경들은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투표자를 알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 후보의 이름을 써 넣는다. 투표는 첫날에는 1회만 실시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 2번씩 실시한다. 여의 날 투표를 해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996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기경 회의를 거쳐 과반득표자도 교황으로 선출할 때까지 비밀회의를 계속해야 한다.

▶ 지역적으로도 박 당선인과 정홍수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남구 백운동 준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160㎡ 건평330㎡
김정기13천만 최저가12억3천만

△ 무인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850㎡
1146㎡ 김정기11억 최저가11억5천

단독 주택

△ 광산구 소촌동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평177㎡
김정기1천만 최저가6천만

△ 광산구 지평동 1층농가주택 대지208㎡ 건평76㎡
김정기2천6백만 최저가1천8백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월전동 평동공단내 2층공장 토지5289㎡ 건물
3587㎡ 김정기26억 최저가18억

△ 광신구 도전동 하남공단내 2층공장 토지1504㎡ 건물
996㎡ 김정기15억3천 최저가12억2천만

△ 광성구 동화면 관리지역 2층공장 토지1983㎡ 건물2320㎡
김정기7억 최저가3억9천만

△ 나주시 공신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김정기17억3천 최저가8억8천만

토지 매매

△ 장성군 삼서면 관리지역 전.일아 3696㎡
김정기5억3천만 최저가3억7천만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김정기2억2천만 최저가1억7천만

△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당로5가 대지 265m(80) 건평990㎡(300) 감정17억
선 매도1억6천

• 요양시설 적합 회손군 도곡운천 대지 5660㎡(1712)
건평223㎡(1681) 대여 10억 범인가15억

• 광주역2동 7층 건물 대지330㎡(100) 건평1224㎡(370)
전세6천 월800 대여 5억3천 매도4억7천

• 월간피출소 신축건물 대지 437m(132) 건평 646㎡(195)
감정은 11억선 대여 4억5천 매도 7억2천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대지 649㎡(210) 건평 158평 공
지지 11억7천 매도12억

• 서방지당 4거리 대지 1182㎡(356) 건평 2850㎡(867)
병원·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억4천 매도 19억

• 중흥동 도로별 100㎡(30) 대여 10억 보증금 5천 월730만원
매도7천만원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단지 910㎡(275) 2층주택
174㎡(52) 대출7천 대여 1억4500

• 광주역2동 대지 357m(108) 건평 1294㎡(397) 원룸65㎡
월1000만원 대여 10억

• 북구 우산동 대지 330m(100) 건평 1366㎡(412) 대출
6억 보증금 8천에 월 900만 매도 10억

• 봉황면 천천리 땅 2546㎡(770) 주택 102㎡(31) 전원
생활주택 아파트나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나대지

• 별장용주택 순창군 희문산 땅 910㎡(275) 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1300㎡(400) 가든등 다용도 사
용 교환가능 2억5천

• 화정여인 대지 1105㎡(334) 오피스텔 생활주택 적
합 대출1억 매도 17억3천

• 비닐하우스 나주시 불현면 담 4684㎡(1417) 시설 600
평 대출1억3천 매도2억7천

• 복동 상암지 992㎡(300) 원룸 등 적합 7억8천

• 보성군 율어면 대지 전·담·일아 747540㎡(26131)
대규모 농장 등 적합 태양광 부지등 적합 1억8천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협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